

## 앎과 깨우침

金 禹 昌

(高麗大 英語英文科 教授)

안다는 것은 깨우침의 기쁨을 거칠 때 비로소 진정한 앎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敎育이 전반적으로 缺하고 있는 것은 能動的인 마음의 깨우침으로서의 앎이다. 敎育의 核心은 단순한 지적 정보의 전수나 암기만이 아니라 앎의 기쁨을 일깨워 주는 데 있어야 한다.

### I

대학에 따라서는 여름에 중·고등학교 敎師訓練課程을 연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바로는 이 과정의 일부를 通信講座 形式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하계 敎育 동원에 따르는 피교육자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정확한 것이지 확인하여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졌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고 잘한 것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루어지던 敎育이 家庭으로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敎育대상자들의 고통이 모두 덜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夏季講習 수강자들의 고통은 단순히 쉬고 싶은 계절에 집을 떠나 불편한 객지에서 강의라는 紀律 생활을 한다는 사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습 과정에 나가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수강자들의 소극적 태도 또는 마지못해 하는 태도이다.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 고통은 집에서 通信講義를 받는 경우에도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고통은 敎育의 불가피한 대가라고 할 수도 있다.

敎育은 일종의 訓練過程이다. 훈련은 자연스러운 無定形의 상태에서 긴장된 定形의 상태로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이 훈련은 스스로 하는 것이면서, 또 외부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말 수사의, “교편을 잡는다”는 말은 敎育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 과연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敎育은, 비단 교사들의 하계 훈련에서뿐만 아니라, 各級 水準에서, 일체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제일 심한 것은 高등학교 2,3학년 시절이지만, 대체로 중학교에서나 대학에서나 敎育의 근본적 前提와 現實은 敎育이 외부적으로

부과되는 훈련이며, 그에 따르는 고통은 불가피 하나 더 나아가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 일종의 훈련의 과정과 훈련의 고통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학의 이론도 動機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것은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하게 하여야 教育效果가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발적인 동기가 教育內容이나 과정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교육외적인 補償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동기는 외적인 기술의 부과에서 그렇게 먼 것이 아니다. 夏季 教師講習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승진이라든가 명예라는 보상은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교육의 동기는 교육 자체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 동기는 교육 자체에서 느끼는 기쁨이다. 나는 美國에서 교사들이 하계 강습을 받는 것을 보았지만, 이 때 교사들은 그들의 일상적 과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知的 世界를 탐구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대체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우리의 현행 教育制度는, 단순화하여 말하면 지적 탐구에서 오는 기쁨, 지적 호기심의 만족이 주는 행복감을 없애버리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 II

지적 탐구의 기쁨은, 약간의 제발과 장려가 필요하다고는 하겠지만 인간의 극히 자연스러운 능력의 하나이다. 論語의 서두에 나오는 문구가 벌써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야”가 아닌가. 儒學은 딱딱하고 외면적이고 엄숙한 인상을 주지만, 사실에 있어서 儒學이 다른 일면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은 모든 것이 順理대로 되어 간다는 증거인 것이다. 孟子에게서 받는 교육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초목을 자라게 하는 비이다(如時雨化之者). 또 그는 “이치와 의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마치 소와 양과 개와 돼지가 나의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은 것

이다(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吾口)”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치와 의를 배우는 것이 또한 즐거운 것이 됨은 당연한 것이다.

교육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많이라고 할 때, 도대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방법 가운데 가장 바른 것은 認識論의 입장에서 이를 정의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목적과 관련하여, 교육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피교육자의 心理를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조금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어, 어떤 知的 情報를 기록한 책을 단순히 사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지식과 관계가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같은 정보를 우리 몸, 가령 동이나 손바닥에 적으면 어떨까? 더 나아가 이것을 외었을 때, 그것은 안다고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試驗은 어떤 지적 정보를 외어두었다가 재생해 놓을 것을 요구한다. 마음에 외어두는 것이 아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가령, 受驗生이 학교에서 배우거나 스스로 책에서 본 것의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억력이 좋은 덕택에 답안지에 그 외운 것을 적어 놓을 수 있었다고 하자. 그때 이 수험생이 그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때 이 수험생은 선생님의 말씀이나 책에 있는 글을 전달하는 役割을 했을 뿐이다. 이것은 그가 어떤 정보를 손바닥에 적었다가 옮겨 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때 적어 놓는 장소가 손바닥이 아니고 기억 또는 머릿속을 뿐이다. 이것은 자명한 것을 조금 과장하여 말한 것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이 단순히 책이나 손바닥이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능동적으로 앎의 대상과 승致하고 이것을 자기의 일부로 흡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 있어서, 안다는 것은 밖으로부터 注入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보유하고 재생하는 과정으로만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거죽으로 볼 때, 이러한 受動的인 보유와 能動的인 소유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어떤 수학의 정리를 우리가 보았을 때, 또는 이것을 외었다가 재생하였을 때, 前提와 過程과 結論이 하나도 틀리는 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 기계적인 재생과 이해된 재생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으로 수긍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다. 그것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心理의 差異에 있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合理性의 테스트가 결국 합리성의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느낌은, 모든 정서가 그러하듯이, 어떤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흥분이 기쁨이나 즐거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論語에서 “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고 한 것은 바로 얹에 따르는 이러한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배우는 것이 즐거운 일이란 것 외에, 배워서 익히는 것이 즐겁다고 한 점이다. 그것은 배우미 익힘을 통하여 內面化될 때 기쁨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즉 마음의 능동적 소유가 기쁨의 조건인 것이다. 朱子는 그의 註釋에서 이러한 내용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익힌다는 것은 세가 자주 나는 것이다. 배워서 그치지 않는 것은 세가 자주 나는 것과 같다. 說은 기쁘다는 뜻이다. 이미 배운 것을 때 때로 익히면 배운 것이 무르익고, 마음에 기쁨을 느껴, 그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그치지 않는 것이다(習, 鳥數飛也. 學之不已, 如鳥數飛也. 說, 喜意也. 既學而又時時習之, 則所學者熟, 而中心喜說, 其進自不能已矣).”

이러한 배움과 기쁨의 관계는, 위에서 비친 바와 같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종교나 다른 정신적 수련에 있어서도, 깨우침은 단순한 지적인 확장을 의미하기보다 커다란 情緒的 체험, 또는 더 나아가 全人格的 체험으로 이야기된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만족스러운 감격의 체험으로 말하여진다. 知識發展過程의 모든 단계가 이러한 종교적 체험의 감격을 수반하는

것일 수는 없다. 그리고 아마 지식의 확장에서 얻어지는 느낌은 종교적인 열반과는 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도 그 나름의 정서적 만족이 있고 그것이 기쁨의 느낌에 가까운 것임은 틀림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안다는 것은 깨우침의 기쁨을 거쳐서 진정한 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되풀이 하여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교육에 전반적으로 걸하고 있는 것은 깨우침으로서의 얹이다. 또 그러니 만큼 참다운 의미에서의 얹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다.

### III

그러면 어떻게 하여 깨우침이 있는 얹이 가능한가?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히 깨우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건대, 이미 비쳤듯이, 교육의 核心은 단순한 지적 정보의 전수나 암기가 아니라 얹의 기쁨을 일깨워 주는 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극적인 각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고통스럽게 부과되는 지식과 훈련이 싹트려고 하는 얹의 기쁨을 죽여버리게 되며, 그러니 만큼 깊은 의미에서 그것이 오히려 非教育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은 能動的이라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注入式 教育의 폐단이 이야기되어 왔지만, 그 폐단은 이런 면에서도 재확인될 수 있다. 그것은 마음의 능동성을 무시한 것이다. 능동적인 느낌이 없이는, 마음이나 몸이 다 같이 기쁨과 같은 적극적 정서를 느낄 수 없다. 주입식 교육, 또는 교사의 일방적 權威에 의지하여 지탱되는 학습이 요구하는 수동적 상태 자체가 비교육적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수동적 교육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사실상 情報의 기억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生事實들이야 말로 마음이 능동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사실적 정보의 기억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중요한 삶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참으로 교육적인 機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순한 사실로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마음의 능동적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것은 사실의 意味를 묻는 것을 말한다. 마음은 의미를 통하여 사실을 비로소 그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사실을 하나로 統合하는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마음은 사실들을 하나의 의미 속에 통합함으로써 사실에 개입한다. 그렇다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실들이 단편적인 것이기보다는 전체적인 것에 가까움으로 하여 마음의 能動的 介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기계적인 全體性이나 體系性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계적 체계성이나 전체성만큼 마음을 짓누르고 죽이는 것도 없다. 여기서 사실적 지식들이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실들 자체가 이루는 체계에 의하여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의 삶의 지속에 의하여서이다. 마음의 능동적인 움직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持續性이다. 그것은 모든 사실적 지식의 습득 과정을 통하여 능동적 자기 同一性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지식의 과정에 전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삶의 一體性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지식 자체에 그대로 나타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관심의 지평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관심의 지평은 지적인 성장과 더불어 점점 사실의 客觀的 體系性에 가까이 간다.

교육의 과정으로서 마음의 지속적인 삶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의 과정에 작용하는 마음과 일상적 삶의 과정에 작용하는 마음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일치함으로써 우리의 일상 생활은 보다 큰 지적 遠近法에 의하여 조명되고, 또 우리의 지식은 일상생활로부터 구체적 체험의 느낌을 얻는다. 그러니 만큼, 能動的 教育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교육자가 처해 있는 現實 상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의 지적인 精巧化가 결국 교육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는 교육에서 형성되는 것이 능동적이며, 현실적이고, 비판적이며, 창

조적인 마음이다. 또 이 마음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동일성을 얻고 그것을 근거로 自己 實現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은 달리 보면 나와 세계, 나와 사회를 한 자리에 놓는 투명한 공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계와 사회의 規則과 眞理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

#### IV

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능동적인 마음의 깨우침 그리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試驗 制度이다. 이것은 우선 사실적인 지식의 단편적 집적의 量을 강조하는 입시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입시제도로 하여, 학생들은 배우는 것을 익히고 즐기고 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그런데다가 이 양에 대한 강조는 모든 교과목을 똑같이 입시과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각 과목 전 공자들의 영토욕에서 나온 주장에 의하여 보장된다. 또 시험제도는 입시가 아니라도 학교 교육의 모든 면에 침투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評價의 필요 또는 더 나아가서 증명의 필요에 이어져 있고, 이 증명은 출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말할 것도 없이 평가가 교육의 과정에서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의 의의는 제일차적으로 교육의 進展程度—참다운 의미에서의 교육의 진전 정도—를 본인에게 알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그것은 社會的 意義를 갖는다. 학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능을 믿을 수 있게 분류·공급할 의무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평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의 교육 과정에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 교육은 評價와 證明을 위하여 존재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세분화되고 경직화된 증명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교육을 외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는, 위에서 간단히 비친 바와 같이, 교육의 과정에 대한 왜곡에 연결되어 있다. 즉 교육의 핵심이 삶의 기쁨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에, 우리는 이러한

제도들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것들이 피할 수 없는 必要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의 극단적인 왜곡마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기쁨을 잊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잊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을 계속적인 고통의 과정으로 또는 이 고통을 참고 견디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다. 삶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이고 조용한 만족의 느낌이 아니라, 폭발적인 환락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또는 극히 世俗的인 행복—부귀영화—에서만 기쁨이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들은 모두 기쁨의 억제와 고통의 기율에의 순응과 투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예로부터 詩人們이 이야기해 오듯이, 삶의 과정은 있는 그대로 기쁨의 과정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만 년을 이 지상에 삶이 지속할 수 있었겠는가.

기쁨의 충동의 억제는 일의 기율에 관계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일은 기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기율이란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삶의 觀點에서 볼 때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創造的表現—그 대표가 되는 예술적 업적이나 科學의 發見은 모두 기율을 필요로 한다. 모든 훌륭한 일을 위한 집단적 움직임은 기율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기율이 반드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고통도 그저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기율은 능동적으로 습득될 때, 자랑과 기쁨의 근원이 된다. 고통까지도 깨우침의 기쁨의 제기가 될 수 있다. 藝術의 가장 높은 표현인 비극이 보여 주는 것은 고통의 깨우침에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볼 때, 기쁨의 충동의 억제는 기쁨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 관계되어 있다. 이 두려움은 억압적 제도와 습관에서 나온다.

우리가 사람 하나 하나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自發性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은 밖으로부터 부과되는 일체의 단순화된 슬로 우건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죽음을 택한다. 그렇다고 마음이 제 마음대로의 마음이란 말은 아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은 투명한 空間에 불과하다. 그 속에 사회와 세계가 투영된다. 다만 마음은 이 투영된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 자유와 여유는 그것을 존중해 주는 社會가 부여한다. 결국 사회가 사람 하나 하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이 과정은 기쁨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